삼성전자, 반도체·LCD 8조원 투자

반도체 5조5000억원에 LCD 3조원 책정 ... 미래 성장엔진 확보 집중

삼성전자가 2010년 반도체·LCD(Liquid Crystal Display) 부문에 8조원 이상을 투자할 방침이다.

최지성 삼성전자 대표이사는 3월19일 오전 서울 서초동 삼성전자 서초사옥에서 열린 정기 주주총회에서 “2010년 투자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반도체와 LCD 분야에 대해 각각 5조5000억원, 3조원의 투자계획을 세워놓고 있다”고 밝혔다.

미래 성장엔진 확보에 집중해 2009년보다 투자액을 확대할 계획으로 경영환경 변화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사업성과와 연동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필요하면 해당분야의 설비 증설 폭을 조절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또 2010년 전체 매출과 영업이익을 2009년보다 대폭 확대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최지성 사장은 “2010년 매출은 환율 등의 불확실성이 예상되나 주력사업의 원가경쟁력, 시장지배력 강화로 전년대비 10%대 성장을, 영업이익은 2009년을 상회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 2010년 삼성전자가 공격적 경영에 나서되 유연하고 창조적인 조직으로 변모하는데 주력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0/03/19>